

티아라 소연, 9세 연하 축구선수 조유민과 11월 결혼

등록 2022.01.18 08:40:36



[서울=뉴시스] 티아라 출신 소연. 2022.01.18. (사진=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) photo@newsis.com*재판매 및 DB 금지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그룹 '티아라' 출신 소연(35·박소연)이 아홉 살 연하인 프로 축구선수 조유민(26·수원 FC)과 결혼한다.

소연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8일 "소연과 조유민이 3년 열애 끝에 오는 11월 결혼한다"고 밝혔다.

11월은 프로축구 올해 시즌이 마무리되는 때다. 소연은 조유민의 내조를 위해 올 시즌을 함께 시작하기로 계획했다고 생각엔터는 전했다.

생각엔터 관계자는 "두 사람의 앞날에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며 향후 소연의 더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"고 청했다.



[서울=뉴시스] 조유민. 2022.01.18. (사진=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) photo@newsis.com*재판매 및 DB 금지 *재판매 및 DB 금지

소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메인보컬로 활약했다. 멤버들과 함께 '롤리폴리(Roly-Poly)', '왜 이러니' 등의 히트곡을 냈다. 2017년 팀을 탈퇴했다. 이후 솔로 가수로 나섰다. MBC TV '복면가왕' 등 여러 예능프로그램, 드라마, 뮤지컬 등에 출연했다.

조유민은 지난 2018년에 대한민국 U-23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. '자카르타-팔렘방 아시안게임'에서 금메달 획득에 일조하기도 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